

교회 소식

- 6월 1일부터 담임목사는 70 Bedford Rd, Pleasantville 감리교회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 감리교회 커뮤니티 가든 작업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시간과 절차 등 안내 이메일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목사 또는 Rev. Susan Chupungco, (susan.chupungco@nyac-umc.com)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6월 6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추원정 집사 (시 138)
- 친교: TBA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성경 공부 및 모임

- 성경공부:** TBA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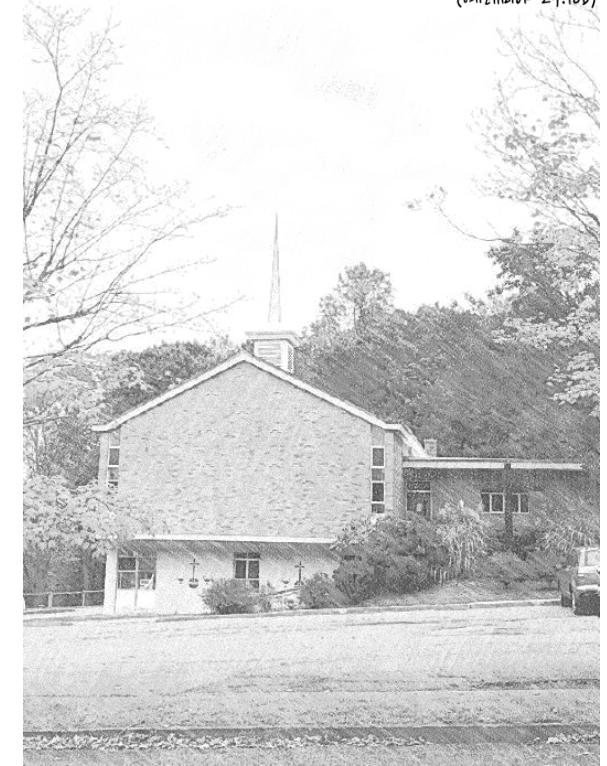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에베소서 29:10b)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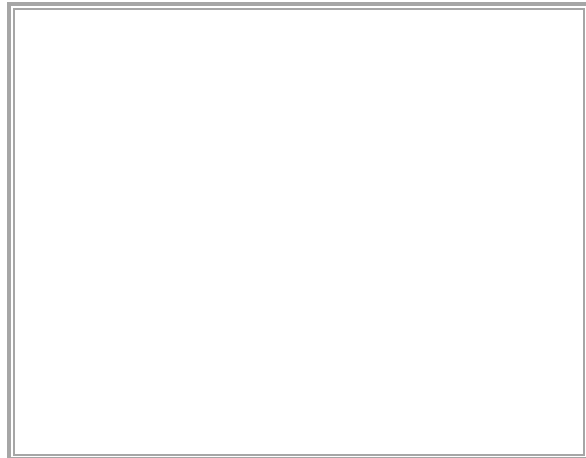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1 Kings 11:4-10** ----- Leader
 Sermon-----“**The Ups and Downs of
 Life With God**” -----Pastor Kim
 Reflection Prayer-----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묵상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70(79) “피난처 있으니” ----- 다함께
Hymn God is Our Refuge Strong
 대표기도 -----시편 29편 ----- 최은정 집사
Prayer Psalm 29
 봉헌-----“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Offering
 성경봉독 -----**마태복음 21:33-46** ----- 인도자
Word of God Mt. 21:33-46
 설교----- “보라 내가 택한
Sermon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이민영 목사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386 (439) “만세 반석 열린 곳에” ----- 다함께
Hymn In the Rifted Rock I'm Resting
 *축도-----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권위

마태복음 21:23-32

소위 권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물으러 왔습니다. 정말
 정당한 권위라면 순종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권위에

위험을 받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면
 믿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자기들 권위를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눈 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주권적인 권위입니다. 눈을 감는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섭리하시며, 장차
 모든 이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권위가 싫었고, 세리와 창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존경받던 대제사장,
 장로들입니까? 멸시 받던 세리와 창녀들입니까? 싫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작은 아들입니까? 마땅한 줄 알아서
 예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은 자기 맘대로 한 큰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권위자라면 사랑의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주권적이라면, 그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그의 심판이 그의 주권이라면, 사랑과
 구원도 자격을 떠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자기보다 높은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 두려워 순종할 뿐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권위에 압도될 때에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이고 싶지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알 때 자기 의를 자랑하는 헛된 일을 멈춥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빌
 때에야 주님 없는 평안함보다 고난을 유익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실 권위가 높음을 알고 주를 경외하십시오.
 사랑이 높음을 알고 소망하십시오. 받을만한 것을 받았다는
 자랑을 버리고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며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내 맘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를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하십시오.